



전주매일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

전북자치도·전남도·광주광역시, 2036 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힘 모으기로
농협중앙회 호남 이전 등 경제분야 연대 강화... 서해안 철도 등도 공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23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2036 전주하계올림픽 성공 유치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호남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7월, 7년만에 부활한 호남권 정책협의체가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시·도간 협력을 선언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2025년의 업무협약은 국제행사 유치·개최, 첨단산업 및 건설 SOC 등에 대해 보다 세 부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2036 전주하계올림픽 등의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추진단의 구성·운영을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대한민국과 호남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릴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위해 △2036 전주하계올림픽(전북 전주) 최종 유치 지속 협력과 △제3차 UN기후협약당사국총회(전남 여수)의 유치 △2025광주 세계(장애인)양궁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모았다.

또한 호남권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기능하도록 경제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생명 관련 기관이 집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호남이전에 공동 노력하고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AI 미래산업의 호남권 유치, 호남권의 청정에너지 환경 조성 및 첨단산업을 위한 △에너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가속화하기 위한 SOC 확충을 위해 고흥~광주~완주~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새만금~

고창~영광~함평~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영광~빛그린·미래차국가산단~광주송정~연구개발특구를 잇는 광주신산업선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호남의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라며,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이 되었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다. 국가가 흔들리는 지금, 다시금 호남의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이룰자”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우리 호남의 땅과 바다는 우리 민족을 살찌웠고, 호남의 정신은 골골진 시대의 고비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호남권 경제동맹을 더욱 견고히 해, 호남의 찬란한 풍요와 번영을 되찾고 국가대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만들 것”이

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수도권 1극 체계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공유하는 이번 협약의 핵심 배경이다”며 “교통과 경제가 광역화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은 협력기구 마련으로 더욱 구체화되며, 우리의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AI 인프라를 확실히 호남으로 가져오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개발에도 힘을 모아 호남의 더 큰 발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본사 인사

▲권 회 성
임 : 국장
명 : 사회부장

▲오 상 근
임 : 부장
명 : 경제부장

(4월 1일자)

내년 국가예산 확보 본격 시동

특별자치도 특례제도 활용 전략사업·미래먹거리 육성 등
전북자치도, 세 차례 걸쳐 신규사업 510건 6183억 규모 발굴

전북특별자치도는 3차례에 걸쳐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510건 6183억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본격화했다.

도는 지난 21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관련사진 3면〉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특별자치도 특례제도를 활용한 전략사업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새만금 및 SOC 확충 △정부정책과 연계한 핵심프로젝트 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국가예산 확보환경은 어느때보다 녹록지 않다. 정부의 재정지출 여건 악화와 정치권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형 국책사업들의 종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

통증증기반 구축사업 등 지역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되면서 이를 대체할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목표를 9조6,0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발굴된 신규사업의 당위성과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중앙부처의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마른 수건을 짜는 마음가짐으로 신규사업 발굴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 예산 편성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임시회 오늘 개회... 내달 3일까지

도정·교육 행정 질문,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4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제417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5~26일 이틀간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을 발의한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5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먼저, 24일에는 개회식 이후 제417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국립현대미술관 호남권 분관 설립 촉구 건의안’, ‘지속가능한 적정규모학교 및 교육력 향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5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은 25일에는 국주영은·김만기·장연국·강동화·최형열 의원이, 26일에는 김슬지·김정수·김동구·진형석·박정규 의원 등 이틀간 총 10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4월 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질문이 미흡한 제도와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의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